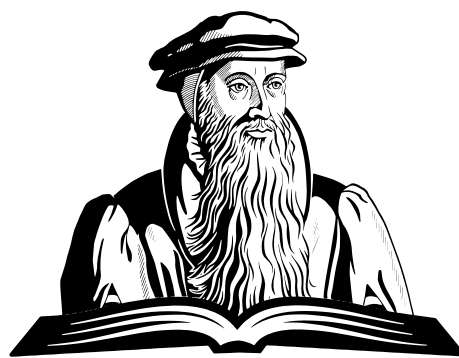

비디오 강의 학습 단계: 성경 신학

강의 17: 성전

강의 발표자: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The John Knox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 2019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판권. 이 출판물의 어떤 부분도 출판사의 서면 허가 없이 검토, 의견 또는 장학금을 목적으로 간단한 인용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또는 이익을 위해 어떤 수단으로도 복제될 수 없습니다.

출판사, 존 녹스 연구소, P.O. Box 19398, Kalamazoo, MI 49019-19398, 미국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공인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합니다.

웹사이트방문: <https://ko.johnknoxinstitute.org>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은 스코틀랜드 자유 교회의 (continuing) 회중인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린빌에 있는 그린빌 장로교회에서 복음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www.freechurchcontinuing.org

학습단계

성경 신학

30 강의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21 장 구약 · 9 장 신약

구약 강의들

1. 소개
2. 창조
3. 타락
4. 노아
5. 아브라함
6. 족장 I
7. 족장 II
8. 출애굽
9. 시내산
10. 성막
11. 희생제물
12. 제사장
13. 유업
14. 다윗
15. 시편
16. 솔로몬
17. 성전
18. 왕국
19. 예언자
20. 포로기
21. 회복

구약 강의들

22. 성육신
23. 속죄
24. 부활
25. 오순절
26. 교회
27. 연합
28. 삶의 적용
29. 사명
30. 영광

강의 17

성전

강의 주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보다 영구한 거처를 세우셨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은 오실 그리스도와 그 분이 시간 속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하실 것을 가리키셨습니다.

본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요한계시록 21:22-23).

강의 스크립트 17

여러분이 자동차로 현대의 도시로 접근할 때 특별히 이 도시가 대도시라면 멀리서 지평선 위에 솟아오른 높은 빌딩을 보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 도시에 여러분이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어떤 것이나 사람이 있다면 그 빌딩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거기에 도착하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날 때 점점 다가갈수록 그들은 멀리서 그 꼭대기에 성전이 있는 고지대에 위치한 예루살렘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 나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았을 수 있고 성에 접근해 갈수록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분이 자신의 백성들 중에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성전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참으로 웅장했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건축구조물이 가진 아름다움과 달리 이 성전은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는 가장 높은 장소였던 성전 산 꼭대기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양의 금으로 성전을 덮어 씌우도록 명하셨기에 해가 뜰 때의 성전의 모습은 불타오르는 듯이 반짝이는 광채가 마치 작은 태양처럼 보였습니다. 이 모습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왜 성전이 성막을 대체하게 되었을까요? 성전과 성막은 어떤 점이 유사하고 어떤 점이 다를까요? 성전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왕국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왜 거룩함이 성전과 관련하여 지배적인 주제입니까? 그리스도와 성전은 또 어떻게 연결됩니까? 성전은 복음의 어떤 부분을 드러냅니까? 이제 성전은 없어졌는데 그렇다면 이 성전은 신약의 교회나 현대의 그리스도인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성전과 다가올 천국은 어떤 관계입니까?

성전은 구약 이스라엘의 핵심으로서 그들의 귀중한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바로 성전의 내실인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구약 성도들의 삶 전체 곧 그들의 삶의 일정과 특성과 정서가 모두 이 거룩한 구조물에 매여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한 참 뒤에 일어났던 바벨론 포로기에도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

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던 시간은 바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였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니엘이 70년 동안 포로로 있는 동안 그는 한 번도 제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시각에 따라 하나님의 정해진 일정대로 살았고 성전의 의식은 여전히 그의 마음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동시대에 기록되었던 시편137:5,6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라도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라도” 우리는 이런 예를 더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자랑스런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울었던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사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 구조물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신학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요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을 알아볼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성막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움직이는 구조물이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상징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순례자로 지내고 또 처음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에만 이스라엘을 섬겼습니다. 반면에 성전은 보다 영구적인 처소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을 왕국의 수도로 삼은 후에 그는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스리는 자신의 통치와 통합되기를 갈망했습니다.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맞춰졌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역대상28:9,10에는 지난 강의에서 언급했던 열왕기상2:2과 비슷하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솔로몬이 성취한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성전의 영광과 광채는 전무후무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8장에서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후에 그것을 성전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봅니다. 언약궤를 들여놓은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전은 국가의 안정과 확장을 의미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열왕기상8:29에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고 하물며 자신이 지은 집은 더욱 더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단순한 상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자비와 죄의 용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성전은 여러 국가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듣고 그분의 집을 향해 찬송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8:43은 솔로몬이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비록 성전에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예술적인 의도가 포함되어 있지만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성경적인 율법은 여전히 유지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인간이 마음대로 고치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역대상28장에 보면 성전에 속한 부요함은 물론이고 많은 구체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가 영감받은 모든 것” (대상28:12)을 주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와 그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대상28:19)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들을 지정하셨습니다. 열왕기상6-8장에는 성전을 완공하는데 칠 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대단한 광경으로서 있었습니다. 성전의 모습을 보는 이마다 숨이 멎을 정도였지만 그것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가면서 이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황폐해졌습니다. 이는 그들의 회개하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호의로운 임재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추방된 상태에서 돌아온 요나에 대한 강의에서도 배우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이 그전과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또다른 성전을 지었지만 그것은 이전의 성전의 규모에 훨씬 미치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모습의 새성전을 볼 때 백성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슬픔이 공존했습니다. 에스라3:12,13장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

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합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전의 신학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의 신학 사이에는 분명히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물론 성전이 그 규모와 영광에 있어서 훨씬 웅장했지만 기본적인 목적과 개별적인 구성요소는 비슷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성막에 대한 강의에서 다룬 내용을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와 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살펴보기를 권면합니다. 대신 이 성전에만 해당되는 몇 가지 신학적인 요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전에 대한 모든 것에는 거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반영하는 장소입니다. 시인은 시편138:2에서 이를 증언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성전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집입니다. 열왕기상9:3,7에는,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 곳에 두며...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의 신학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일정 부분 복음서들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성전정화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2:15,17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엮으시고...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니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거룩한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거룩한 질투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둘째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드렸던 헌당기도에는 성전신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본문이 등장합니다. 이 기도는 열왕기상8장과 역대하 6장에 나옵니다. 다른 모든 것들보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은 언약과 속죄와 중보와 불순종으로부터의 용서와 회개에 관한 신학적인 주제들을 바로 이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 기도에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하나님과의 구원적인 교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요점들이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계시는 솔로몬과 구약의 신자들을 열왕기상8:23에 나타난 결론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는 크고 무겁고 아름다운 휘장이 있었는데 안에 있는 지성소라는 내실을 나머지 온 세상과 분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휘장은 아주 두꺼운 커튼으로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와 거룩한 제사장을 통해서 드러진 속죄하는 제사의 필요성으로부터 분리된 현실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휘장은 찢어져서 열렸습니다. 마가복음15:37,38은,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 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직접적인 길을 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히브리서10:19-22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전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했습니다. 주변국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솔로몬에게 굴복하여 그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15장에 바로 이러한 확장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솔로몬에게서 실현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시편72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재물을 모아서 자신의 집과 왕국을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애굽인들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구원의 전개가 바로 세상과 역사의 중심입니다.

머리 속으로 빨리 앞으로 가서 신약시대를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알려진 가장 먼 곳까지 이르는 도로를 건설했던 로마제국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방세계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적절한 때와 장소에 그 도로를 두셨던 것입니다. 그 도로는 더욱 위대한 그

리스도의 왕국의 전진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제국보다 더 위대한 나라를 위해서요. 오늘날 선교사들은 비행기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세계로 가지고 갑니다. 비록 우리가 거리나 국가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성경신학에 대한 이 강의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복음과 자기 왕국의 확장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솔로몬의 시대에도 발견합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게 위해서 모든 자원을 한데 모으고 있습니다.

이 요점에서 마지막인데, 바로 성전이 에덴동산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태초에 있었던 그 동산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다가올 천국과도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에덴동산의 이미지가 성전의 구체적인 사항과 디자인에 엮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에덴동산과 성전은 둘 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임재를 드러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 하셨던 낙원에서 사람이 쫓겨났던 타락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친히 제사와 구속을 예비하심으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전의 성막은 이 언약적 약속에 대한 예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전에서 더욱 풍성하게 표현됩니다. 천국에 있는 성전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곧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로, 우리는 신약에서 이루어진 성전의 성취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신약성경은 성전신학을 광범위하게 사용합니다. 성막과 마찬가지로 성전도 하늘의 영원한 실재에 대한 패턴이며 그림자입니다. 곧 새 언약 아래서 오게 될 더 큰 영광 가운데 성취될 것을 가리킵니다. 앞선 강의를 통해서, 배운 대로 이러한 구약의 의식들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성전과 성전의 상징들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림자로 돌아가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이 미리 제시했던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은 구약의 성전이 상징했던 신약의 실체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냐는 것입니다. 네 곳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은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2:19-21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삼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물리적인 구조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육체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성전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성전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약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성전의 기능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잠시 생각해 보시면 정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답은 골로새서2:9에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완전하고 충만하심이 형상화된 것입니다. 성전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가장 충만하게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두 번째 신약의 성취는 교회에서 발견됩니다. 교회도 역시 성전으로 묘사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회 가운데 거하시므로 이 사실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1장에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상징하는 촛대 사이를 걷고 계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자, 저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촛대 사이를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의 이미지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촛대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1장에서 우리는 촛대가 교회의 상징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16:18을 기억하세요.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집입니다. 히브리서3:6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써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시편118편에 약속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의 백성들은 그 분 위에 지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성전으로 세워 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이 사실은 에베소서2장 마지막 부분인 20-22절에서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 교회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본문에 모든 조각이 다 등장합니다. 각각의 신자는 이 집에서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2:5에는,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모일 때 그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이 가졌던 세상적인 영광보다 훨씬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18:20)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늘에 있는 보좌의 방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재는 설교와 성경읽기와 기도와 시편찬송과 성례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단순한 규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신약적인 성취는 교회에서 두 번째로 발견됩니다.

세 번째, 영역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입니다. 각각의 신자도 역시 성전으로 묘사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를 실제로 경험합니다. 고린도전서3:16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고린도전서6:19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16에서도 동일한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지대한 영향을 끼칠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신자 안에 거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 몸이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롬6:13). 우리가 좀 전에 언급했던 고린도전서6장과 고린도후서6장을 보면 이것은 죄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라는 결과를 낳게 되고 거룩과 그리스도에 대한 성별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전에 신약에서 성취된 네 번째 영역은 천국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천국에서 만나게 되고 절정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영원히 거하시는 거처인 성전의 최종적인 성취는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21:22,23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구약의 성전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21:27에 나오듯 부정한 것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성전의 최종적인 성취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토록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천국에는 이 땅의 그림자를 대체하는 천국의 실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전이라는 건물 속에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보다 영구한 거처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오실 그리스도와 그 분이 시간 속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가리키셨습니다. 하지만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솔로몬 이후 시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뉘어져서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 예루살렘과 성전으로부터 소외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에게서 소외되었던 비극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